
일반논문

시경 의복 수여 모티프와 주 왕실의 빈례*

이 욱 진**

[초 록]

『시경』(詩經)에서 의복을 주고받는 내용이 담긴 시에는 의복 받는 사람의 도착, 의복의 목록 나열, 의복 받는 사람에 대한 환대와 애정 표현이라는 모티프가 있다. 이 각각의 모티프는 모두 주 왕실의 빈례(賓禮)를 구성하는 절차에 부합한다. 소아(小雅) 「채숙」(采菽)과 대아(大雅) 「한혁」(韓奕)에는 이 절차의 전모와 왕의 선물인 예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한편 기존에 남녀의 사랑이나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칭송으로 알려진 국풍의 몇몇 작품에서도 빈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선물로 주어지는 의복은 모두 예복으로 해석된다. 공식 의례의 절차나 왕의 훈시만 기록된 문헌과 달리, 『시경』의 의복 수여 모티프 관련 작품에는 자연 경물의 은유와 손님에 대한 우애의 감정까지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질서를 강조하는 예(禮)와 이를 화합으로 보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3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18년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시경, 의복, 주 왕실, 제후, 빈례, 예복, 예악
Shijing, Clothes, Zhou Palace, Feudal Lords, Treating Guest, Ceremonial Dress, Protocol and Music

완하는 악(樂)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1. 들어가며

본고는 『시경』(詩經)에서 의복을 주고받는 것에 관한 작품이 일정한 모티프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주 왕실에서 거행한 빈례(賓禮)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경』의 의복 관련 주제를 다룬 기존 연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시경』에 등장하는 의복과 장신구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류하여 대략적인 면모를 밝힌 것이다.¹⁾ 이들 연구는 의복의 착용 주체(성별, 신분 등)와 용도(제사, 조회, 군용 등)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시경』 작품 속에서 이 의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이 의복은 단지 해당 작품의 등장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될 뿐, 그 옷이 왜 시에서 언급되어 있는지, 시의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둘째는 국풍(國風)의 의복 주고받기에 관한 시를 남녀의 사랑노래로 풀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의복은 남녀 사이의 사랑의 정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예컨대 위풍(衛風) 「유호」(有狐)의 제1장을 보자.

有狐綏綏，在彼淇梁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저 기수 여살에 있다.
心之憂矣，之子無裳.²⁾　　마음의 근심이여 당신은 치마가 없구려.

1) 김진구(1990), 「詩經에 나타나는服飾과 比喻」, 『韓國生活科學研究』 9,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김진구(1993), 「詩經에 나타나는 男子衣服의 研究」, 『韓國生活科學研究』 11,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김문숙·이순원(1998), 「『시경』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I) — 남자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6, 한국복식학회, 김문숙·이순원(1999), 「『시경』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II) — 여자복식과 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42, 한국복식학회 등.

이 작품은 시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이 분명치 않아 해석이 10여 가지에 달하는 등 『시경』에서 난해한 시로 손꼽힌다.³⁾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노래로 풀이되는데, 화자가 누구인지는 설이 엇갈린다. 「모시서」(毛詩序)에서는 나라가 빈곤한 탓에 예법을 줄이는 혼인이 많아진 것을 시인이 풍자한 것으로 보았다.⁴⁾ 주자(朱子)는 사회 혼란으로 과부가 된 사람이 여우를 보고 부른 노래로 풀이했다.⁵⁾ 장차중(張次仲)은 원정에 나간 남편에게 옷이 없는 것을 근심하는 아내의 시라고 보았다.⁶⁾ 류대백(劉大白)은 사냥 중에 여우를 보고는 잡아서 애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려는 남자의 마음을 읊은 것이라고 하였다.⁷⁾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는 이 시의 테마를 강변의 밀회와 유혹으로 규정하고, 제4구 “당신은 치마가 없구려”[之子無裳]를 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 및 정풍(鄭風) 「건상」(褰裳)과 같이 치마를 걷고 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보았다.⁸⁾

- 2) 『毛詩正義』 卷3. 馬辛民 責任編輯(2000), 『毛詩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 289.
- 3) 夏傳才 主編(2014), 『詩經大辭典』,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p. 81.
- 4) “有狐, 刺時也, 衛之男女失時, 喪其妃耦焉。古者國有凶荒, 則殺禮而多昏, 會男女之無夫家者, 所以育人民也。”(「유호」는 시대를 풍자한 것이다. 위의 남녀가 혼기를 놓쳐서 짝을 잃었다. 옛날에 나라에 흉년이 들면 예법을 줄여서 혼인이 많아지게 했다. 남녀 중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모았으니 그로써 인민을 기르려 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288.
- 5) 『詩集傳』 卷3. “國亂民散, 喪其妃耦。有寡婦見鰥夫而欲嫁之, 故託言有狐獨行, 而憂其無裳也.”(나라가 어지러우니 백성은 흩어져서 짝을 잃었다. 어떤 과부가 홀아비를 보고는 그에게 시집가고자 했다. 그래서 여우가 혼자 다니는데 그에게 치마가 없는 것이 걱정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朱熹(2017),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p. 62.
- 6) 『待軒詩記』 卷2. “蓋衛人從王伐鄭, 更歷時, 伊婦在家, 憂其無衣而作也.”(위 사람이 왕이 정을 치는 데에 따라 갔는데 또 한 해가 지나갔다. 그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그가 옷이 없을까 염려하여 지은 것이다.) 張次仲(2002), 『待軒詩記』, 『詩經要籍集成 15』(中國詩經學會 編), 北京: 學苑出版社, p. 95.
- 7) 劉大白(1983), 『白屋說詩』, 北京: 中國書店, p. 28.

이렇게 설이 엇갈리는 원인은 시의 창작 배경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작자는 물론이고 화자가 누구인지도 텍스트 자체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이’(之子) 또한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뉜다. 그럼에도 이들 해석의 공통점은 시가 사랑하는 남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주자가 국풍을 기본적으로 민간 가요로 간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⁹⁾ 물론 이들 작품을 서민 남녀의 애정시로 간주하는 것은 문면상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하지만 이 해석으로는 이 시가 왜 『시경』에 수록되었는지, 당시 시집의 독자 또는 시가 공연의 청자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국풍에는 비단 서민의 노래로 보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귀족 계층이 지은 노래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마르셀 그라네는 서민의 즉의혼 풍습에서 경쟁적으로 불린 이 짝짓기 노래가 자연과 인간이 이루는 신성한 대칭성을 간직함으로써 궁정시와 함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본다.¹⁰⁾ 그러나 그가 상정한 고대 중국의 공동체 형태는 희랍의 도시국가를 모델로 한 것으로, 당시의 실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¹¹⁾ 또한 농민의 시가 문인의 궁정시에 끼친 영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시경』에 다량으로 수록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선진(先秦) 시기 『시경』의 창작과 형성, 공연 및 전승의 정황이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대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의복 주고받기에 관한 시가 왜 지어졌는지, 또한 어

8) 마르셀 그라네(2005), 신하령, 김태완 역,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서울: 살림, p. 121.

9) 「詩集傳序」 “凡詩之所謂風者，多出於里巷歌謠之作，所謂男女相與詠歌，各言其情者也。”(『시경』에서 이른바 풍이란 마을 골목의 노래에서 나온 것이 많다. 이른바 남녀가 함께 부르며 각자 자기의 마음을 말한 것이다.) 朱熹(2017), p. 2.

10) 마르셀 그라네(2005), pp. 265-272.

11) 王曉平(1994), 「《詩經》文化人類學闡釋的得與失」, 『天津師大學報』1994年第6期, 天津師範大學, p. 69.

디에 쓰였는지를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고자 한다. 『시경』이 창작된 주대(周代)는 종법(宗法)에 따른 천자와 제후의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봉건사회였다. 따라서 『시경』의 많은 작품은 기본적으로 주공(周公) 이래 고도로 발달한 예악 문화의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된 서주(西周) 사회는 예를 중시했으며 이는 오례(五禮: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로 대표된다. 각각의 의례에 쓰이는 예물과 음악이 다 달랐으며, 참례(參禮)하는 인원의 신분에도 엄격한 질서와 등급이 적용되었다. 의복을 비롯하여 『시경』의 시에 등장하는 갖가지 기물을 해석할 때에는 이 예악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례 가운데 빈례는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다. 빈례는 주 왕실에서 천자가 제후를 손님으로서 맞이하는 것과 제후국 상호 간에 왕래하는 외교 활동을 포함하며, 왕실의 종법제도와 통치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¹²⁾ 천자가 제후를 맞이하는 예법은 조례(朝禮)와 근례(覲禮)이다.¹³⁾ 또한 토지를 신하에게 수여하는 봉건 의례는 ‘석명례’(錫命禮)라고 한다.¹⁴⁾

『시경』의 대아 「한혁」, 소아 「채숙」을 비롯하여 『서경』 「문후지명」(文侯之命)편,¹⁵⁾ 『의례』 「근례」(覲禮)편, 『좌전』 희공(僖公) 28년 및 『국어』(國語)¹⁶⁾와 근년에 출토된 청동기 명문(銘文)에는 임금이 신

12) 江林(2010), 『《詩經》與宗周禮樂文明』,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 198.

13) 조례와 근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가운데 『예기』(禮記) 「곡례」(曲禮)편의 기록에 근거하여 조례는 여러 제후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하의 자격으로서 임금을 뵈는 것, 근례는 한 명의 제후가 처음에는 신하로서 청죄(請罪)하고 나중에는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으로 나누어 보는 심문탁의 설에 따른다(沈文偉(1999), 「覲禮本義述」, 『宗周禮樂文明考論』,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p. 116). 이 경우 본고에서 다루는 『시경』 작품은 대부분 근례와 관련이 있다.

14) 齊思和(1998), 「周代錫命禮考」, 『二十世紀中國禮學研究論集』(陳其泰·郭偉川·周少川 共編), 北京: 學苑出版社, p. 380.

15) 평왕(平王)이 진(晉) 문후(文侯)를 책봉한 내용이다.

16) 양왕(襄王)이 진(晉) 문공(文公)을 책봉한 내용이다.

하를 맞이하고 임명하는 예법이 기록되어 있다.¹⁷⁾ 이 예법 절차는 서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¹⁸⁾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후가 왕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교외의 숙소에 묵게 된다. 지정된 기일의 이른 아침에 면복(冕服)을 갖춰 입고 왕실의 종묘 등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배석 관료인 우자(右者)와 함께 왕을 뵈는다. 근례의 경우 제후는 업무 보고를 먼저 한다. 왕의 뒤에 배석한 사관이 왕의 책문을 낭독한다. 이 책문에는 훈시와 선물 하사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낭독이 끝나면 제후는 책문을 수령하여 감사의 예를 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때 하사품은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왕의 사자가 교외에 있는 제후의 숙소로 가져가서 전달한다.¹⁹⁾ 종묘에서의 공식 의례가 끝나면 제후는 숙소로 돌아가고 왕 또는 고위 관료가 주관하는 전별연에 참석한다. 전별연을 끝으로 빈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제후는 봉지로 복귀한다. 이 빈례의 절차는 전승문헌과 출토문헌이 서로 부합하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시경』의 작품과도 상호 보완이 되어 당시의 예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시경』의 경우, 기존에는 「모시서」의 설에 따라 아(雅)와 송(頌) 가운데 「첨파락의」(瞻彼洛矣), 「채숙」, 「송고」(崧高), 「증민」(蒸民), 「한혁」, 「강한」(江漢), 「상무」(常武), 「비궁」(閟宮) 등의 작품을 봉건 의례인 석명례

-
- 17) 근례에 출토된 홀호개(匭壺蓋)와 송호(頌壺)의 명문에는 ‘홀’이나 ‘송’이 관직에 임명될 때의 의식 절차와 임금에게 하사받은 의복 등의 물품이 적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남규(2010),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II) —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西周金文의 해설』, 서울: 신아사, pp. 316-317과 pp. 502-503 참조.
- 18) 크릴은 청동기 명문에 기록된 신하가 땅이나 선물을 받는 의식이 『의례』에 똑같이 묘사되어 있다고 하였다(Hertlee Glessner Creel (1936), “Bronze Inscriptions of the Western Chou Dynasty as Historical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56, No.3, American Oriental Society, p. 342). 진몽가 또한 『상서』, 『시경』 등의 문헌과 청동기 명문은 서로 인증되므로 서주 책명 제도를 밝히기 위한 사료로서의 중요성이 대등하다고 보았다(陳夢家(2004),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p. 400, p. 409).
- 19) 「근례」에는 명령서인 책문 역시 교외의 숙소에서 하사품과 함께 전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로 분류하였다.²⁰⁾ 본고에서는 대아 「한혁」, 소아 「채숙」, 위풍 「유호」, 정풍 「치의」(緇衣), 진풍(秦風) 「중남」(終南), 「무의」(無衣), 당풍(唐風) 「무의」(無衣), 빈풍(邠風) 「구역」(九罭) 등의 8편을 의복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해석한다. 이상의 작품군 가운데 아(雅)에 해당하는 「한혁」과 「채숙」에는 주대의 석명례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 이미 밝혀져 있다. 나머지는 모두 국풍에 속하며 현대 학자들은 진풍 「무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작품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남녀 사이에서 옷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 시를 한데 놓고 보면 ‘군자의 도차 → 의복 수여 및 신하의 지위와 의무 확인 → 숙소 귀환 및 전별연’의 순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작품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투적 어구가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모티프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풍의 작품군 역시 아의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창작 및 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²¹⁾

본고에서는 우선 빈례의 절차에 따라 『시경』의 의복 수여 관련 내용이 반복적인 모티프를 이루는 양상을 해명하고, 수여하는 의복이 빈례의 예복과 대응되는 문헌 사례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의복 수여의 정치적 의미와 제후의 책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왕과 제후 사이의 독특한 정이 시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각 작품의 대표적인 기존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빈례의 예법과 시의 음악이 어떤 상호

20) 陳漢平(1986), 『西周冊命制度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p. 12; 齊思和(1998), p. 402.

21) 이들이 본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민간 가요였는데 이후에 주 왕실에서 수집, 제작하여 빈례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들이 민간 가요임을 입증할 방법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들 가요를 수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 왕실에서 이들을 직접 창작한 정황으로 볼 경우에는 앞에서 든 각종 문헌과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용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경』의 창작 시기로 여겨지는 서주에서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제후의 도착과 의복 수여

2.1. 시 도입부의 패턴

『시경』에는 서두에 자연 경물이 나오는 시가 많다. 『시경』의 자연 경물 묘사를 시의 화자가 실제 보고 겪는 것으로 보느냐, 시의 내용에 대한 비유로 보느냐에 따라 시의 해석이 달라진다. 근래의 의복 수여 관련 작품에도 여러 유형의 자연 경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개 왕과 제후의 우의를 비유한다. 본고에서는 이 자연 경물을 ‘호출’, ‘획득’, ‘존재’라는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경물의 의미를 풀이하고자 한다.

호출이란 멀리 있는 이를 불러서 만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주남(周南) 「관저」(關雎) 제1장의 “관관 저구새 황하 모래톱에 있다. 그윽한 곳의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²²⁾을 보자. 일반적으로 「관저」를 해석할 때 군자가 저구새를 사냥한다든지 황하 가에서 숙녀를 찾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짝을 찾아 함께 있는 한 쌍의 저구새는 군자와 숙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어울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유호」 제1장을 다시 살펴보자.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저 기수 어살에 있다. 마음의 근심이어 당신은 치마가 없구

22) 『毛詩正義』 卷1. 馬辛民 責任編輯(2000), pp. 25-26.

려.”[有狐綏綏，在彼淇梁。心之憂矣，之子無裳.] 여기서 ‘綏綏’는 첩어로서 짝 찾는 모습의 의태어, 우는 소리의 의성어 두 가지의 풀이가 다 가능하다.²³⁾ 저구새가 황하 모래톱에서 소리 내어 울며 짝을 찾듯이 여우 또한 기수 어살에서 짝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시의 화자 눈앞의 풍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비유로 이해하면 된다. 「유호」 역시 기수에서 짝을 찾는 여우처럼 시의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획득은 동식물을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채수」 제1장 “콩을 따세 콩을 따세 광주리에 바구니에. 군자가 내조할 때 무엇을 내려 줄까.”[采菽采菽，筐之筥之。君子來朝，何錫予之。]²⁴⁾의 경우에는 콩을 따는 정경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러 왔을 때 콩을 따서 대접한다는 뜻이 아니다. 멀리 있는 손님이 주인을 찾아오는 사건과 들에 자라는 콩을 따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된 비유이다. 「관저」 제2장 “들 쪽날쪽 노랑어리연꽃 좌우로 뜯는다. 그옥한 곳의 숙녀를 자나깨나 그린 다.”[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에 대해 주자가 노랑어리연꽃을 뜯듯이 부지런히 숙녀를 찾아야 한다고 풀이한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다.²⁵⁾

「구역」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장에는 “아홉 눈²⁶⁾

23) 綏綏에 대해서는 짝지어 다니는 모습(『모전』(毛傳)), 혼자 다니며 짝을 찾는 모습(주자), 털이 많은 모습(육당(陸堂)) 등 설이 다양하다(向熹(1986), 『詩經詞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p. 441). 이는 첩어(疊語)가 글자의 뜻보다는 소리를 구성 원리로 삼기 때문이다. 의미 부여는 문맥에 따라 가변적임을 알 수 있다.

24) 『毛詩正義』 卷15.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048.

25) 『詩集傳』 卷1. “彼參差之荇菜，則當左右無方以流之矣。此窈窕之淑女，則當寤寐不忘以求之矣.”(저 들쪽날쪽한 노랑어리연꽃은 좌우 방향 없이 따라 한다. 이 그옥한 곳의 숙녀는 자나깨나 잊지 말고 찾아야 한다.) 朱熹(2017), p. 3.

26) “罟”은 “域”과 통하여 그물의 “界域”이 곧 그물눈이며, “九”는 많은 수를 가리키니 ‘구역’은 매우 촘촘한 그물을 가리킨다고 고증한 문일다의 설에 따랐다 聞一多

그물의 물고기는 송어와 방어. 내 그이 만나면 용무늬 옷에 자수 치마 주리.”[九罭之魚，鱒魴。我覲之子，袞衣繡裳。]²⁷⁾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고기를 잡아 시의 주인공에게 대접하는 내용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오듯이 반가운 손님이 주인을 찾아온 것을 뜻한다. 소아 「원앙」(鴛鴦) 제1장 “원앙이 나니 그물로 잡는다. 군자는 만년토록 복록을 누리시길.”[鴛鴦于飛，畢之羅之。君子萬年，福祿宜之。]²⁸⁾에서도 또한 새를 그물로 잡는 모습으로써 손님맞이의 사건을 형상화한다. 물고기나 새를 잡아들이는 획득의 행위는 원래 내 소유가 아닌 자연 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결합의 의미가 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만나서 정서적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사랑의 감정과 상응한다. 풀 뜯기나 고기잡이, 원앙 사냥의 비유는 모두 획득의 모티프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뜻한다.

존재의 유형은 동식물이 어느 장소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종남」 제1장 “종남산에는 무엇이 있나, 개오동과 매실나무 있지. 군자가 도착하면 비단 겹옷에 여우 가죽옷 주리.”[終南何有，有條有梅。君子至止，錦衣狐裘。]를 보자.²⁹⁾ 개오동이나 매실나무가 종남산에 있다는 말은 모든 사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조화로운 상태를 뜻한다. 폐풍(擲風) 「간혜」(簡兮) 제4장 “산에는 개암나무, 늪에는 감초 있네. 누구를 생각하나. 서방의 미인이지.”[山有榛，隰有苓。云誰之思，西方美人。]에 대해 정현(鄭玄)은 식물이 제각기 올바른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써 현인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³⁰⁾ 따라서 「종남」은 이러한 조

(1993), 『詩經通義乙·九罭(鬪六)』, 『聞一多全集』 4 詩經編下,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p. 365.

27) 『毛詩正義』 卷8.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623.

28) 『毛詩正義』 卷14.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012.

29) 『毛詩正義』 卷6. 馬辛民 責任編輯(2000), pp. 497-498.

30) 『毛詩正義』 卷2. “箋云，榛也苓也，生各得其所。以言碩人處非其位。”(개암나무나 감초는 자라서 각기 제자리를 찾았다. 그로써 높으신 님 계신 곳이 제자리가 아닌

화로운 존재의 상태로써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있는 즐거운 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짝을 부르는 동물, 동식물의 획득,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식물 등 다양한 자연 경물을 비유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란 비단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또는 형제 및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자연 경물의 비유 다음에는 손님의 도착과 의복의 수여가 이어진다. 「근례」 등 예법의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문헌과 달리 『시경』에는 시인이 필요로 하는 절차만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관련 작품을 살펴보자.

「채숙」 제1장

君子來朝，何錫予之… 군자가 조회하러 오면 무엇을 내려 줄까…
又何予之，玄袞及黼…³¹⁾ 또 무엇을 줄까 검은 용무늬 옷에 보무늬 치마…

「한혁」 제2장

韓侯入覲，	한 후작이 들어와 근례를 올리네，
以其介圭，入覲于王。	규옥을 갖고 들어와 왕에게 근례를 올리네.
王錫韓侯，…	왕께서 한 후작에게 내리시는 것은…
玄袞赤舄，… ³²⁾	검은 용무늬 옷과 붉은 신…

「중남」 제1장

君子至止，錦衣狐裘。 군자가 도착하면 비단 겹옷에 여우 가죽옷 주리.

을 말하였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94.

31) 『毛詩正義』 卷15.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048.

32) 『毛詩正義』 卷18. 馬辛民 責任編輯(2000), pp. 1444-1445.

「구역」 제1장

我觀之子，袞衣繡裳。 내 그이 만나면 용무늬 옷에 자수 치마 주리.

이들 작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제후가 봉지에서 왕을 불러 찾아오면 왕이 곧바로 의복 선물을 내리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종남」과 「구역」에서는 시의 화자와 ‘군자’ 또는 ‘그이’와의 만남이 왕실의 빈례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에 뒤이어 나오는 의복이 조회 또는 근례에서 하사하는 예복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역시 「채숙」이나 「한혁」과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한혁」을 제외하면 작품 문면에 주인공이 특정되지 않는다. 「한혁」에 대해서는 주 왕실 주변 세력의 토호인 한후를 그 지역의 우두머리인 백(伯)으로 책봉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있다.³³⁾ 하지만 나머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추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종남」의 경우 「모시서」에서는 진(秦) 양공(襄公)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³⁴⁾ 반면에 이시를 진 목공(穆公)에게 조회하러 온 진(晉)의 공자(公子)에 대한 내용으로 풀이하는 설도 있다.³⁵⁾ 따라서 이 시는 특정 인물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천자가 자신을 찾아온 군자(君子)에게 예복을 하사하며 칭송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33) 심재훈(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 258, pp. 284-293.

34) 『毛詩正義』 卷6. “終南，戒襄公也。能取周地，始爲諸侯，受顯服，大夫美之。故作是詩以戒勸之。”(「종남」은 양공을 권계한 것이다. 주 땅을 취하고 처음 제후가 되어 관복을 받을 수 있었으니 대부들이 찬미하였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그를 권계하였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497.

35) 『毛詩復古錄』 卷4. “穆公時兵力最強，晉之公子世卿，多往朝焉，借以定其位。因作此爲燕饗公子之樂歌。”(목공 때 병력이 가장 강했기에 진의 공자와 세습한 경은 가서 조회하고 그의 힘을 빌려 지위를 안정시키는 일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이 시를 지어 공자를 연회로 대접하는 악가로 삼았다.) 吳懋淸(1997), 『毛詩復古錄』, 『四庫未收書輯刊』(四庫未收書輯刊編纂委員會 編), 伍輯·貳冊, 北京: 北京出版社, p. 372.

또한 「구역」에 대해 『모전』과 정현은 천자가 주공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대우로 풀이하였다.³⁶⁾ 전통적으로 빈풍은 주공에 관한 시로 여겨져 왔지만 이 작품의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특정 인물로 한정하기 어렵다. 「중남」의 「군자」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제후로 볼 수 있다. 주자는 이 시를 동쪽 지역 주민들이 서쪽의 수도로 귀환하려는 주공을 만류하는 내용으로 해석했다.³⁷⁾ 하지만 빈례의 전체 절차와 비교한다면, 반대로 임금을 뵈고 자신의 봉지로 복귀하려는 제후를 천자가 만류하는 빈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³⁸⁾ 이상의 두 작품의 의복 수여 모티프는 기본적으로 「채숙」, 「한혁」과 같은 형태로 여겨진다. 이들 작품은 서주 당시의 왕실 의례라는 맥락 속에서 창작되었고 이후에도 같은 의례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2.2. 『시경』의 하사 예복

『시경』에 등장하는 의복은 대부분 중요한 예식 때 입는 예복이다. 예악 문화가 발달한 주대에 예복은 매우 중시되고 세분화되었다. 제후는 천자를 찾아볼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가 조회하러 올 경우에도 빈례에 따라 예복을 입어야 했다. 제례 등 다른 예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왕에서 대부에 이르기까지 제례 등의 예식 때 입는 옷을 면복(冕服)이라

36) 『毛詩正義』卷8. “傳, 所以見周公也. 袞衣, 卷龍也.”(그로써 주공을 접견하는 것이다. 袞衣는 ‘卷龍’이다.) “箋云, 王迎周公, 當以上公之服往見之.”(왕이 주공을 맞이할 때는 마땅히 上公의 예복으로 가서 접견해야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2000), p. 623.

37) 『詩集傳』卷8. “此亦周公居東之時, 東人喜得見之, 而言九罭之綱, 則有鱗魴之魚矣. 我遘之子, 則見其袞衣繡裳之服矣.”(이 또한 주공이 동부에 머물 적에 동부 주민이 그를 볼 수 있어 기뻐하며 ‘아홉 주머니 그물이라면 준어와 방어가 있고, 우리가 그 분을 만나면 융무늬 옷 자수 치마 보지.’라고 한 것이다.) 朱熹(2017), p. 151.

38) 자세한 논의는 4. 손님에 대한 친근감 표출 참조.

고 한다. 그 가운데 석명례에서 왕이 신하를 어떤 직무에 임명하면서 하사하는 의복은 명복(命服)이라고 한다. 「한혁」, 「채숙」, 「구역」, 「종남」에 나타나는 용무늬 옷(袞衣), 검은 용무늬 옷(玄袞), 자수 치마(繡裳), 붉은 슬갑(赤芾)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주석에서 모두 명복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치의」와 「유호」의 경우 현재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내용으로 풀이된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오는 의복 또한 빈례에서 하사받은 면복 또는 명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법에 관한 기존의 문헌 및 근래에 출토된 청동기 명문과 함께 비교하면 이들 의복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경』 작품에 등장하는 의복을 종류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윗옷	검은 용무늬 옷(玄袞), 용무늬 옷(袞衣), 검은 겹옷(緇衣), 비단 겹옷(錦衣), 여우 가죽옷(狐裘), 도포[袍] 등
치마	보무늬 치마[黼], 자수 치마[繡裳]
기타	붉은 슬갑(赤芾), 행진[邪幅], 붉은 신(赤舄), 허리띠[帶]

여기서는 검은 겹옷과 허리띠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치의」의 검은 겹옷과 「종남」의 비단 겹옷은 겨울옷인 가죽옷 위에 걸치는 예복이다. 겹옷과 가죽옷은 색깔이 어울려야 했다. 『논어』 「향당」(鄉黨)편의 기록을 보면 검은 양 가죽옷 위에는 검은 겹옷을 입고, 누런 여우 가죽옷 위에는 누런 겹옷을 입는 것이 예법에 맞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⁹⁾ 『예기』(禮記) 「옥조」(玉藻)편에서 여우 가죽옷과 비단 겹옷은 왕과 제후의 복장으로 규정하였다.⁴⁰⁾ 물론 이 옷은 평상시의 복장이 아니라 제후가 조

39) 『論語注疏』卷10. “緇衣, 羔裘. 素衣, 麕裘. 黃衣, 狐裘.”(검은 겹옷은 양 가죽옷, 흰 겹옷은 사슴 가죽옷, 누런 겹옷은 여우 가죽옷.) 주석: “孔曰, 服皆中外之色相稱也.”(공씨가 말했다. 의복은 모두 안팎의 색상이 서로 맞아야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p. 146-147.

회할 때 입는 특별한 예복이다. 정현은 「중남」 편이 석명례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⁴¹⁾

검은 겹옷도 누런 색 비단 겹옷과 같은 용도로 쓰였다. 「치의」 제1장을 보자.

縑衣之宜兮，	검은 겹옷이 딱 맞네.
敝，予又改爲兮。	해지면 내 다시 지어주리.
適子之館兮，	그대 관사로 가 있게.
還，予授子之絜兮。 ⁴²⁾	돌아갈 때 내 그대에게 밥을 주리.

「모시서」에서는 국도의 주민들이 정 무공을 칭송한 것이라고 하였다.⁴³⁾

40) 『禮記正義』卷30. “君衣狐白裘，錦衣以裼之…狐裘，黃衣以裼之。錦衣狐裘，諸侯之服也.”(임금이 여우 흰털 가죽옷을 입을 때는 비단 겹옷으로 덮는다. … 여우 가죽옷은 누런 색 옷을 겹에 두른다. 비단 겹옷에 여우 가죽옷은 제후의 복장이 다.) 주석: “正義曰，…天子視朝，服皮弁服，則天子皮弁之下，有狐白錦衣也。諸侯於天子之朝亦然。故秦詩云，君子至止，錦衣狐裘。此經云君，則天子兼諸侯也。凡在朝，君臣同服。…諸侯朝天子，受皮弁之裼，歸來嚮國則亦錦衣狐裘以告廟，則秦詩云，君子至止，錦衣狐裘，是也.”(정의에서 말하길, … 천자는 조회를 볼 때 피변복을 입으니, 천자의 피변 아래에는 여우 흰털 가죽옷에 비단 겹옷이 있다. 제후가 천자의 조정에서도 또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진풍 「중남」 편에 “군자가 도착하면 비단 겹옷과 여우 가죽옷 주리.”라고 하였다. 『예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천자와 제후를 아우른 것이다. 조정에 있을 때 임금과 신하는 복장이 같다. …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할 때 피변의 하사품을 받고 원래의 나라로 돌아오면 또한 비단 겹옷과 여우 가죽옷 차림으로 종묘에 고한다. 진풍 「중남」 편에 “군자가 도착하면 비단 겹옷과 여우 가죽옷 주리.”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p. 1048-1049.

41) 『毛詩正義』卷6. 箋云，至止者，受命服於天子而來也。諸侯狐裘，錦衣以裼之。(이른다는 것은 천자에게 명복을 받으러 오는 것이다. 제후의 여우 가죽옷은 비단 겹옷을 그 위에 걸친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498.

42) 『毛詩正義』卷4.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326.

43) “縑衣，美武公也。父子並爲周司徒，善於其職，國人宜之。故美其德，以明有國善善之功焉.”(「치의」는 무공을 찬미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주 사도가 되어

또한 임금의 현인을 초빙하여 옷과 집을 주며 후대하는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⁴⁴⁾ 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이 시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자기 관할의 조정으로 출근하는 경대부에게 여자가 하는 말이라든지,⁴⁵⁾ 여자가 애인에게 옷을 지어주며 하는 노래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⁴⁶⁾ 문면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에 비추어볼 때 이 시는 천자에 대한 보고를 마친 제후에게 옷을 하사한 뒤 그가 돌아갈 때 향연을 베푸는 근례의 절차에 더욱 부합한다. ‘緇衣’는 같은 색상의 ‘玄衣’보다 더 등급이 높은 명복으로 추정된다. 『예기』에서는 천자가 국가의 원로를 봉양할 때 ‘玄衣’를 입는다고 하였다.⁴⁷⁾ ‘玄’이 검붉은 색인데 비해 ‘緇’는 짙은 흑색이다.⁴⁸⁾ 진한평은 염색 회수에 따라 복식의 빛깔이 붉은 빛에서 검은 빛으로 어두워지는데, 염색 차수가 많을수록 고귀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주례』(周禮), 『이아』(爾雅),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의 문헌을 종합하여 “一染”은 “緇”, “二染”은 “黼”, “三染”은 “黻”, “四染”은 “朱”, “五染”은 “緇”, “六染”은 “玄”, “七染”은 “緇”로 정리하였다.⁴⁹⁾ 그렇다

그 직책을 잘 수행하니 국민들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 덕을 찬미하여 봉국이 있는 자의 뛰어난 공적을 밝혔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325.

44) 高亨(1981), 『詩經今注』, 臺北: 里仁書局, p. 107.

45) 程俊英, 蔣見元(1991), 『詩經注析』, 北京: 中華書局, p. 219.

46) 袁梅(1999), 『詩經譯注』, 青島: 青島出版社, p. 165.

47) 「王制」.“周人冕而祭, 玄衣而養老.”(주 사람들은 면관을 쓰고 제사를 지냈으며 검은 겹옷 차림으로 노인을 봉양했다.) 주석: “集說, 玄衣, 亦朝服也. 緇衣素裳, 十五升布爲之, 六入爲玄, 七入爲緇, 故緇衣亦名玄衣也.”(‘玄衣’ 또한 조회할 때 입는 옷이다. ‘緇衣素裳’은 울수가 15승인 베로 만드는데, 여섯 번 물들이면 ‘玄’이 되고 일곱 번 물들이면 ‘緇’가 된다. 따라서 ‘緇衣’ 또한 ‘玄衣’라고 부른다.) 원문과 번역은 정병섭 역주(2009), 『譯註 禮記集說大全·王制』, 서울: 학고방, p. 310을 참고하여 본고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48) 『毛詩正義』卷8. 「七月」.“載玄載黃, 我朱孔陽.”(검은 천, 누런 천, 내 붉은 빛 가장 좋은 천.) “傳, 玄, 黑而有赤也.”(‘玄’은 검으면서 붉은 빛이 있는 색이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582.

면 ‘緇衣’는 최고급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다. 천자는 제후에게 이처럼 고급스러운 옷을 주면서 망가지면 또 주겠다며 다음에 다시 올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유호」 제2장에는 “여우가 킁킁 기수 가에 있네. 마음의 근심이여 당신은 허리띠가 없구려.”[有狐綏綏, 在彼淇厲. 心之憂矣, 之子無帶.]라고 하였다. 이 허리띠 역시 면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면복의 허리띠는 혁대와 대대(大帶)로 나뉜다. 혁대에는 슬갑과 패옥을 달게 되어 있고, 대대는 혁대를 몸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동기의 명문에는 춘추시기에 주 천자가 진(晉)의 자범(子犯)에게 허리띠를 하사한 사례가 있다.⁵⁰⁾

허리띠는 지배층인 군자의 법도를 나타내는 복식이었다. 『시경』에서 허리띠가 등장하는 사례를 보자. 조풍(曹風) 「시구」(鴉鳴)편 제2장의 “홀륭하신 군자, 그의 허리띠는 흰 비단실.”[淑人君子, 其帶伊絲.]에 대해 정현은 이 띠가 바로 대대라고 하였다.⁵¹⁾ 『예기』 「옥조」편을 보면 이 대대 역시 신분별로 법식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좌전』 환공 2년에는 법도의 상징으로 허리띠가 언급되어 있다.⁵³⁾ 이상의 문헌 자료

49) 陳漢平(1986), pp. 286-288.

50) 자범중(子犯鐘) 명문. “王易(賜)子犯(犯)輅車, 四馬, 衣常(裳), 帶, 市, 佩.”(왕은 자범에게 수레, 말 네 필, 윗옷과 치마, 허리띠, 슬갑, 패옥을 하사했다.) 원문과 번역은 왕휘(2013), 광노봉 역, 『상주금문』 하, 서울: 학교방, p. 655를 참고하여 본고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51) 『毛詩正義』卷7. “其帶伊絲, 謂大帶也. 大帶用素絲, 有雜色飾焉.”(“그의 허리띠는 흰 비단실”이란 대대를 말한다. 대대는 흰 비단실을 쓰고 잡색의 장식물이 있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559.

52) 『禮記正義』卷13. “而素帶, 終辟, 大夫素帶, 辟垂, 士練帶, 率下辟, 居士錦帶, 弟子縞帶, 并紐約用組.”(제후는 흰 띠이고 끝에 가선을 두른다. 대부는 흰 띠이고 늘어뜨린 끈에 가선을 두른다. 사는 흰 명주 띠이고 홀겉의 양끝을 꿰매며 끈 아래에 가선을 두른다. 거사는 비단 띠이고 학생은 흰 띠인데 모두紐약에 인끈을 쓴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054.

53) 桓公 2년. “袞, 冕, 黻, 珽, 帶, 裳, 幅, 舄, 衡, 紕, 紕, 紕, 紕, 紕, 昭其度也.”(용무늬 옷,

를 미루어볼 때 「유호」의 허리띠 역시 군자인 제후가 착용하는 대대이자 천자의 하사품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정통성의 확립과 제후의 의무

서주 초기에는 제후들이 새로 임명될 때 주 천자를 알현하는 일이 잦았다. 봉해진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제후의 입장에서 주 왕실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었고 주 왕실에서 책봉하는 책명(冊命)과 하사품은 곧 제후의 권력을 보증하는 상징이었다. 아무리 봉건 제도가 세습제라고 하더라도 왕실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후에게 힘이 실릴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 즉위한 제후는 천자를 찾아뵈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하사받은 의복은 증표의 기능을 했다. 당풍 「무의」에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豈曰無衣七兮. 어찌 칠명의 의복이 없다고 하오?
不如子之衣, 安且吉兮.⁵⁴⁾ 당신의 옷만큼 편하고도 길하지는 않지요

이 시를 진(晉) 무공(武公)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설도 있지만,⁵⁵⁾ 역시 특정 인물의 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새로 즉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미 해당국의 임금이 되었지만 천자가 보장하는 권위가 필

면관, 슬갑, 옥홀, 허리띠, 치마, 행전, 신, 비녀, 면류, 관끈, 면관은 그 법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楊伯俊(1990), 『春秋左傳注』(修訂本) 2版, 北京: 中華書局, pp. 86-87.

54) 『毛詩正義』卷6.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465.

55) 「毛詩序」. “無衣, 美晉武公也. 武公始并晉國, 其大夫爲之請命乎天子之使, 而作是詩也.”(「무의」는 진 무공을 찬미한 것이다. 무공이 처음 진나라를 병탄했을 때, 그의 대부가 그를 위해 천자의 사신에게 임명을 청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464.

요했던 것이다. 『모전』에 따르면 ‘칠명’이 바로 제후의 권위를 상징하는 면복의 등급이다.⁵⁶⁾ 제2장에는 ‘육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주 왕실의 경(卿)에 해당하는 등급이다.⁵⁷⁾ 이 시의 주인공은 후작이나 백작에 해당하는 제후이면서 동시에 왕의 경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주 시대 지방의 제후는 왕과 같은 조상을 모시는 종친으로서 권력 행사의 이로움과 왕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중앙 조정의 고위 관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실제로 『좌전』에 따르면 정(鄭)의 무공(武公), 장공(莊公), 곽(虢)의 기보(忌父)는 주 왕실의 경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았다.⁵⁹⁾

따라서 당풍 「무의」의 화자는 이미 명복이 있었지만 천자로부터 새로운 명복을 하사받아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나라의 임금이자 천자의 조정의 신하로서의 겸직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한 것이다.

제후의 권위가 천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채숙」 제3장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赤芾在股，邪幅在下。 붉은 슬갑은 허벅지에, 행전은 아래에 있네.
 彼交匪紆，天子所予。 교만하거나 하이해지지 말라 천자께서 주신 것이니.
 樂只君子，天子命之。 즐거우신 군자여 천자가 임명하셨네.
 樂只君子，福祿申之.⁶⁰⁾ 즐거우신 군자여 복록이 이르기를.

56) “傳，侯伯之禮七命，冕服七章。(후작과 백작의 예법은 칠명으로, 면복은 칠장이다.)”, “諸侯不命於天子則不成爲君。(제후가 천자에게 임명되지 않으면 임금이 될 수 없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465.

57) “傳，天子之卿六命，車旗，衣服以六爲節。”(천자의 경은 육명으로, 수레와 깃발, 의복이 육을 등급으로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466.

58) 리평(2017), 이청구 역, 『중국고대사』, 서울: 사회평론, p. 180.

59) 隱公 3년. “鄭武公，莊公爲平王卿士。王貳于虢，鄭伯怨王。”(정 무공과 장공이 평왕의 경사가 되었는데, 왕이 곽공에게 마음을 돌리자 정 백작은 왕을 원망하였다.) 8년. “夏虢公忌父始作卿士于周.”(여름에 곽공 기보가 비로소 주 왕실의 경사가 되었다.) 楊伯俊(1990), pp. 26-27, p. 58.

60) 『毛詩正義』 卷15. 馬辛民 責任編輯(2000), pp. 1052-1053.

제1, 2구의 슬갑이 허벅지에 있고 행전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른바 적재적소의 뜻이다. 이 슬갑과 행전은 모두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이들을 해당 신체 부위에 알맞게 착용함으로써 제후가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제3, 4구 역시 새로 임금이 된 것은 천자로부터 나온 권력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어서 새로 즉위한 제후를 축복하면서도 이는 천자가 임명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후는 천자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천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했다. 「한혁」 제1장에서 천자는 한 후자에게 천자를 대신하여 봉지를 성실하게 통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王親命之，纘戎祖考。 왕께서 친히 명령하신다. “그대 조상을 이어서
無廢朕命，夙夜匪解。 내 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헤이해지지 말라.
虔共爾位，朕命不易。 그대 자리를 경건히 받들면 내 명은 바뀌지 않으리.
榦不庭方，以佐戎辟。⁶¹⁾ 내조하지 못하는 나라를 다스려 나를 도와다오.”

「한혁」에 실린 왕명은 석명례에 상투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비슷한 표현이 최근 2005년에 발굴된 서주 목왕(穆王) 시기의 청동기 명문에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왕명에서 한 후자는 자신의 봉지 외에도 인근의 이른바 부용국(附庸國)을 천자 대신 도맡아서 관리하는 임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⁶³⁾ 한 후작이 받은 예복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⁶⁴⁾

61) 『毛詩正義』 卷18.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443.
62) 정백록(井伯親)의 명문. “汝迺筮(敬)夙夕，勿法(廢)朕命.”(너는 아침저녁으로 공경하여 내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 원문과 번역은 Paul Nicholas Vogt (2012), “Between Kin and King: Social Aspects of Western Zhou Ritual”, Columbia University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75-276 참고.
63) 『孟子』 “萬章下”. “不能五十里，不達於天子，附於諸侯，曰附庸.”(봉지가 사방 오십 리가 못 되어 천자에게 조회할 수 없고 제후에 붙는 것을 부용이라고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孟子注疏』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 319.

그밖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적 의무였다. 제후는 왕의 천하를 지키고 왕이 군대를 일으키면 그에 호응하여 원조를 제공해야 했다. 천자가 각 제후국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병역의 의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⁶⁵⁾ 「채숙」 제4장에는 “즐거우신 군자여 천자의 나라를 지키라.”[樂只君子，殿天子之邦.]라고 하였다.⁶⁶⁾ 위(衛), 진(晉), 노(魯), 연(燕) 등의 동성(同姓) 제후들의 분포지를 보면, 중국 동부 전역에 걸쳐 주요 교통로를 중심으로 주 왕실을 보호할 수 있는 요충지에 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⁶⁷⁾

또한 천자는 필요시 제후를 이끌고 정벌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 제후가 조회하러 오지 않자 환왕(桓王)은 친히 중군을 맡아 곽, 채(蔡), 진(陳), 위(衛) 네 나라의 군대와 함께 정을 치기도 했다.⁶⁸⁾ 진풍 「무의」에는 이러한 군사적 의무에 대한 천자와 제후의 대화가 드러나 있다. 제1장을 보자.

豈曰無衣，與子同袍。	어찌 옷이 없다 하오 그대와 도포를 함께 하리다.
王于興師，脩我戈矛，	왕께서 군사를 일으키시면 제 창을 닦아서
與子同仇。 ⁶⁹⁾	당신과 원수를 함께 하겠습니까.

64) 고미나미 이치로는 청동기 명문의 하사 물품이 단순히 왕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만 이 아니라, 주어진 직무를 맡을 때에 필요한 의례 용품이라고 해석한다(小南一郎(2006), 『古代中國天命と青銅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pp. 139-141). 한 후작 역시 왕에게서 받은 예물을 부용국과의 의례 행사에서 활용했을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65) 瞿同祖(2005), 『中國封建社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 68.

66) 『毛詩正義』 卷15.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055.

67) 리평(2017), pp. 154-156.

68) 『左傳』 환공 5년. “夏 … 王奪鄭伯政，鄭伯不朝。秋，王以諸侯伐鄭，鄭伯禦之，王爲中軍。虢公林父將右軍，蔡人，衛人屬焉。周公黑肩將左軍，陳人屬焉。”(여름에 … 왕이 정 백작의 정무를 박탈하자 정 백작은 조회하지 않았다. 가을에 왕이 제후들을 이끌고 정을 치니 정 백작이 막았다. 왕은 중군이 되었다. 곽공 립보는 우군을 맡았는데 채, 위가 배속되었다. 주공 흑견은 좌군을 맡았는데 진이 배속되었다.) 楊伯俊(1990), pp. 104-105.

주자는 이 시가 진나라 사람들의 용맹무쌍함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⁷⁰⁾ 하지만 천자가 자신이 입는 옷과 똑같은 명복을 하사하고 제후가 그에 화답하여 맹세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⁷¹⁾ 서주 전기의 청동기 명문에는 전쟁에 관한 주제가 기록된 사례가 자주 나타나며, 실제로 주 왕은 서부 지역 제후의 도움을 받아 산둥(山東) 지역의 동이(東夷)를 친히 정벌한 기록이 있다. 심지어 소왕(昭王)에 이르면 한수(漢水) 유역에 원정을 떠났다가 왕이 전사한 사례도 있다.⁷²⁾ 이렇게 천자가 친히 지휘하는 대규모 원정에는 제후의 참전이 필수적이었다. 진풍 「무의」는 바로 왕과 제후의 정벌 활동을 기록한 청동기의 명문을 보완하는 방증 자료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임금과 신하가 옷을 매개로 한 강력한 유대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같은 예복을 착용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제후에게 옷을 하사하는 것은 후대에도 제후의 충성과 의무를 담보하는 구속력 강한 선물로 여겨졌다. 한신(韓信)은 초의 사신과 괴통(蒯通)에게서 유방(劉邦)으로부터 자립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유방에게서 받은 옷에 있었다.⁷³⁾ 한대에는 신하

69) 『毛詩正義』 卷6.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505.

70) 『詩集傳』 卷6. “秦人之俗, 大抵尙氣概, 先勇力, 忘生輕死, 故其見於詩如此.”(진 사람의 풍속은 보통 기개를 숭상하고 용맹한 힘을 앞세워서 삶을 잊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니, 시에 나타난 것이 이리하다.) 朱熹(2017), p. 120.

71) 도포 역시 조복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馬縞, 『中華古今注』 卷中. 「袍衫」. “袍者, 自有虞氏卽有之. 故國語曰, 袍以朝見也. 秦始皇三品以上綠袍深衣, 庶人白袍, 皆以絹爲之.”(도포는 순임금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국어』에서 “도포로 조회에서 임금을 뵈었다.”라고 하였다. 진시황 때 삼품관 이상은 녹색 도포와 심의를 입고 서인은 흰색 도포를 입었는데 모두 명주실로 지었다.) 원문과 번역은 마호(2018), 김장환 역주, 『중화고금주』, 서울: 지식음만드느 지식, pp. 215-216을 참고하여 본고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72) 리평(2017), pp. 160-162.

73)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漢王授我上將軍印, 予我數萬衆, 解衣衣我, 推食食我, 言聽計用, 故吾得以至於此. 夫人深親信我, 我倍之不祥, 雖死不易.”(한왕은

에게 의복을 내릴 때 백성을 잘 다스린 것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⁷⁴⁾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경』에 반영된 주 왕실의 빈례에 이르게 된다.

4. 손님에 대한 친근감 표출

본고에서 다루는 시에는 실제 의례에서 벌어진 의식 절차 및 왕과 제후의 공식 발언이 담겨 있다. 엄격한 신분 질서에 따라 진행되며 분위기도 엄숙하다. 하지만 시에서는 친한 사이에 흔히 쓸 법한 농담과 은근한 친밀감이 깃들게 된다. 아울러 손님에 대한 두터운 정이 표출되기도 한다.

먼저 언어유희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자. 「채숙」에서 “군자가 온다는

내게 상장군의 인수를 주었고, 내게 수만 명의 군대를 주었으며, 옷을 벗어 내게 입혀주고, 밥을 내어 내게 먹여주고, 내 말을 듣고 내 계책을 썼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요. 사람이 나를 깊이 친하게 대하고 믿어준다면 내가 그를 등지는 것은 불길하니 죽더라도 바꿀 수 없소.)

“韓信曰，漢王遇我甚厚，載我以其車，衣我以其衣，食我以其食。吾聞之，乘人之車者載人之患，衣人之衣者懷人之憂，食人之食者死人之事，吾豈可以鄉利倍義乎。”(한신이 말했다. “한왕은 나를 우대한 것이 매우 두터웠소. 나를 태운 것은 자기 수레였고, 나를 입힌 것은 자기 옷이었으며, 나를 먹인 것은 자기 음식이었소. 남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근심을 싣고, 남의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의 걱정을 품으며, 남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에 목숨 바치오. 내 어찌 이득을 향하고 의리를 등질 수 있으리오.”) 원문은 司馬遷, 『史記』, 武英殿二十四史本,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19. 1. 10. <https://ctext.org/shiji/zh>.

- 74) 『白虎通義』卷5「考黜」“能安民者賜衣服，…，能使人富足，衣食倉廩實，故賜衣服，以彰其體。”(백성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자에게 의복을 내리고, …, 사람들이 부유하고 넉넉하여 의식과 창고와 채워지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의복을 내려서 그 풍채를 빛나게 한다.) 원문은 班固, 『白虎通德論』, 四部叢刊初編本,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19.1.10. <https://ctext.org/bai-hu-tong/zh>, 번역은 반고(2005), 신정근 역주, 『백호통의: 백호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전문헌의 포괄적 논의』, 서울: 소명, pp. 240-241을 참고하여 본고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데 무엇을 내릴까? 줄 것은 없지만 큰 수레와 네 마리 말이 있지. 또 무엇을 줄까? 검은 용무늬 옷과 보무늬 치마.”[君子來朝, 何錫予之. 雖無予之, 路車乘馬. 又何予之, 玄袞及黼.]라고 하였다.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레와 예복 등 의례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물품을 망설임 없이 거론하는 발언은 과장스러운 겸양이다. 애정의 크기를 선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제후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선물이다.

한편 천자와 제후가 묻고 답하는 농담으로 구성된 시도 있다. 당풍의 「무의」는 먼저 천자가 제후에게 왜 옷이 없다고 하느냐고 묻는다. 이에 제후는 천자에게서 편안하고 따뜻한 새 옷을 받고 싶다고 응수한다. 제후가 천자를 찾아보면 천자는 주인으로서 으레 옷을 선물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약속된 문답을 벌이는 것이다. 진풍 「무의」도 마찬가지로 정형구 “어찌 옷이 없다 하오”[豈曰無衣]를 활용하고 있다. 손님은 옷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에 온 것 자체가 선물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뜻하게 된다. 이는 또한 상대방에게 옷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는 사람의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손님의 입장에서 이 의복은 당연한 선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답변을 내놓게 마련이다. 이것이 당풍에서는 선물에 대한 찬사로, 진풍에서는 보답의 맹세로 나타난다.

「유호」에서도 의복의 결핍이라는 자의적 규정이 나타난다. “당신은 치마가 없구려”[之子無裳]는 그에게 정말 옷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는 당풍 「무의」와 진풍 「무의」의 “어찌 옷이 없다 하오” 및 「치의」의 “해지면 내 다시 지어주리”[敝, 予又改爲兮]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한다. 제후가 천자를 뵈러 왔는데 그가 입은 예복이 천자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이다. 천자는 주인이자 종주국의 입장에서 멀리서 온 일가친척인 제후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싶다. 그래서 손님에게 멀쩡한 옷이 있는데도 짐짓 옷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육에게 잘해주고 싶은

인정이다.

보다 더 정감이 넘치는 것은 손님인 제후를 접대하는 천자의 발언이다. 시에서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과 떠나야 하는 손님을 만류하는 모습이 노래된다. 엄숙한 의례를 마치면 손님에게 연회가 베풀어진다. 「한혁」의 경우 “안주는 무엇이었나? 구운 자라와 생선. 채소는 무엇이었나? 죽순과 부들. 선물은 무엇이었나? 네 마리 말과 큰 수레.”[其餼維何，魚鼈鮮魚。其載維何，維筍及蒲。其贈維何，乘馬路車。]⁷⁵⁾ 등 성대한 잔칫상과 하사품이 열거된다.

「치의」의 “그대 관사로 가 있게. 돌아갈 때 내 그대에게 밥을 주리.”[適子之館兮，還，予授子之粢兮.]에서 ‘館’은 관청으로 보는 설이 있으나,⁷⁶⁾ 여기서는 제후가 천자를 뵈러 와서 묵는 숙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館’은 『설문해자』에서 “객사이다. ‘食’을 따르고 ‘官’의 소리이다. 『주례』에 “오십 리에 ‘市’가 있고, ‘市’에 ‘館’이 있으며 ‘館’에 ‘積’이 있는데 이로써 조정을 찾는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되어 있다.”[客舍也。从食官聲。周禮，五十里有市，市有館，館有積，以待朝聘之客。]라고 하였다.⁷⁷⁾ 또한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편에도 “순이 위로 요임금을 뵈자 요임금은 사위에게 별궁을 숙소로 삼게 하고, 또한 순을 향연으로 대접할 때 번갈아 손님과 주인이 되었으니 이것이 천자이면서 필부를 벗하는 법이다.”[舜尙見帝，帝館甥于貳室，亦饗舜，迭爲賓主，是天子而友匹夫也。]라고 하였다.⁷⁸⁾ 따라서 「치의」에서 “그대 관사로 가 있게”는 왕에게

75) 『毛詩正義』卷18.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1449.

76) 『毛詩正義』卷4. “箋云，卿士所之之館，在天子之宮，如今之諸廬也。”(경사가 가는 관은 천자의 궁에 있으며, 지금의 ‘제려’와 같다.) “正義曰，… 此言諸廬，正謂天子宮內，卿士各立曹司，有廬舍以治事也。”(정현이 말하는 ‘제려’는 천자의 궁 안에서 경사들이 각각 부서를 세워 청사를 보유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을 말한다.)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326, 328.

77) 許慎(1988), 『說文解字注』第2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 221.

78) 『孟子注疏』卷10. 馬辛民 責任編輯(2000), p. 326.

서 책문을 받는 의례를 마치고 교외의 숙소로 가는 것을 말하고, “돌아갈 때”는 제후가 자신의 봉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한편 천자가 선물인 옷을 내세우며 제후에게 좀 더 머물다 가라고 만류하는 경우가 있다. 「구역」 제3, 4장을 보자.

鴻飛遵陸,	기러기 날아 언덕을 따라가네.
公歸不復,	공이 돌아가면 다시 오진 않을 테니,
於女信宿.	아아 그대는 이틀 밤만 더 주무시오.

是以有袞衣兮,	그래서 용무늬 옷 있는 거요.
無以我公歸兮,	우리 공을 데리고 돌아가지 마시오.
無使我心悲兮. ⁷⁹⁾	내 마음 슬프게 하지 마시오.

이 시는 전체가 천자를 화자로, 제후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장의 용무늬 옷은 손님을 만류하는 도구가 된다. 이 옷은 화자와 청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호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정표이다.

이상의 작품에 나오는 대화나 문답은 엄숙한 공식 의례가 열리는 종묘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천자가 당상에 자리하고 제후가 당하에서 절하며 책명과 하사품을 주고받는 일련의 의식은 엄정한 절차에 따라 거행된다. 책명은 사관이 대신 낭독하고, 의복 역시 천자의 대리인인 태사(太史)가 제후의 관사에 가서 전달할 뿐 천자와 제후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다.

천자와 제후가 농담조의 문답을 주고받는다든지, 제후에게 옷을 받았으니 떠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천자와 제후는 공식적으로는 군신 관계이지만 주 왕실의 종법 제도에서는 친척 관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시로써 우의를 감정에 와 닿

79) 『毛詩正義』 卷8. 馬辛民 責任編輯(2000), pp. 623-625.

도록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는 빈례의 마지막 순서인 송별연에서 공연되는 음악의 노래로 불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상황을 방증할 수 있는 사례가 『좌전』 양공(襄公) 27년 조에 보인다.

鄭伯享趙孟于垂隴，子展，伯有，子西，子產，子大叔，二子石從。趙孟曰，七子從君，以寵武也，請皆賦以卒君貺，武亦以觀七子之志。子展賦草蟲，...⁸⁰⁾

정 백작이 조맹을 수릉에서 대접할 때 자전, 백유, 자서, 자산, 자태숙과 두 자석이 수행했다. 조맹이 말했다. “일곱 공자께서 임금님을 따르며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구려. 청컨대 모두 시를 읊는 것으로 임금님이 내리신 연회를 마칩시다. 저 또한 이로써 일곱 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전이 「초충」을 읊자...

진(晉)의 대부 조맹(趙孟)이 정에 방문했을 때 정은 빈례로써 사신인 조맹을 교외에서 대접했다. 이때 정 의 대부들이 연회 자리에서 『시경』의 시를 읊어 양국 우호 관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힌 내용이다. 진과 정은 모두 주 왕실과 함께 희성(姬姓)의 동성 제후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주 왕실의 빈례에서도 송별연 때 종주국과 제후국 사이의 우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래가 불렸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예법과 음악의 관계는 상보적이다. 예는 차등의 질서를 강조하고 악은 서로 다른 계층의 어울림을 지향한다. 『논어』에서 유약(有若)은 예의 적용에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주자는 이에 대한 주석에서 화합의 정신에 따라 음악이 생긴 것이라는 범조우(范祖禹)의 설을 인용하였다.⁸¹⁾

80) 楊伯俊(1990), p. 1134.

81) 「學而」. “有子曰，禮之用，和爲貴。先王之道，斯爲美，小大由之。”(유약이 말했다. 예의 적용은 화합이 귀하다. 선왕의 도는 이를 아름답게 여기니 크고 작은 일이 이에 따랐다.) 주석: “范氏曰，凡禮之體，主於敬而其用則以和爲貴。敬者，禮之所以立也。和者，樂之所由生也。若有子可謂達禮樂之本矣。”(범조우가 말했다. “예의 본질은 공경을 주로 하고 그 적용은 화합을 귀중하게 여긴다. 공경이란 예가 확립되

주 왕실의 빈례가 천자와 제후의 지위를 확인하고 상하 질서를 확립하는 예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화합에는 음악이라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했다. 『한서』(漢書)에서는 화친의 기쁨을 시를 읊고 악기를 연주하여 나타낸다고 하였다.⁸²⁾ 의복이나 거마 같은 하사품에 더하여 시의 언어와 악기의 선율로써 임금과 신하, 그에 앞서 혈육의 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상호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여 통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필요성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5. 나오며

『시경』 대다수의 작품은 창작, 공연의 배경이나 수용, 전승의 상황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근래 청동기 명문 등 새로운 자료가 출토 및 정리되는 추세에 따라 『시경』을 주 왕실의 예악 제도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경』에서 의복 수여에 관한 내용은 여러 작품에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는 모티프를 이루고 있다. 자연 경물은 시의 화자와 손님의 우의를 비유한 것이고, 손님의 도착에 뒤이어 의복의 수여로 연결되는 패턴이 드러난다. 이 의복은 주 왕실의 빈례에서 제후에게 하사되는 예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남녀의 애정 관련 내용으로 해석되어 온 「치의」와 「유호」 역시 천자와 제후의 우의로 새롭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질서를 강조하는 예와 화합을 추구하는 악이 결합한

는 근거이고, 화합이란 음악이 생겨나는 바탕이다. 유약과 같은 경우에는 예악의 근본을 통달했다고 이를 만하다.”) 원문 및 번역은 김창환 역주(2017), 『완역 논어집주』, 서울: 명문당, pp. 43-45를 참고하여 본고의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82) 『漢書』卷22, 「禮樂志」: “和親之說難形, 則發之於詩歌詠言, 鐘石筦弦.”(화친의 기쁨은 형용하기 어려우니 시가에서 말을 읊고 종과 석경, 관악기, 현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드러낸다.) 班固(1983), 『漢書』, 北京: 中華書局, p. 1028.

결과물이다.

『시경』의 의복 수여 모티프는 본고에서 다룬 여덟 편 외에도 의복이 등장하는 작품이 더러 있으며, 이들 또한 빈례에서의 선물 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빈례의 절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반영된 작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향후 『시경』에 반영된 예악 제도는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주 왕실과 제후국의 교류 관계 및 정치 변동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에 관련된 『시경』 작품의 재해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자 료】

- 김창환 역주(2017), 『완역 논어집주』, 서울: 명문당.
- 마호(2018), 김창환 역주, 『중화고금주』,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반고(2005), 신정근 역주, 『백호통의: 백호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전문헌의 포괄적 논의』, 서울: 소명.
- 왕휘(2013), 곽노봉 역, 『상주금문』 하, 서울: 학고방.
- 정병섭 역주(2009), 『譯註 禮記集說大全·王制』, 서울: 학고방.
- 최남규(2010),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II) —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西周金文의 해설』, 서울: 신아사.
- 高亨(1981), 『詩經今注』, 臺北: 里仁書局.
- 劉大白(1983), 『白屋說詩』, 北京: 中國書店.
- 馬辛民 責任編輯(2000),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馬辛民 責任編輯(2000),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馬辛民 責任編輯(2000), 『孟子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馬辛民 責任編輯(2000), 『毛詩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班固(1983), 『漢書』, 北京: 中華書局.
- 楊伯俊(1990), 『春秋左傳注』(修訂本) 2版, 北京: 中華書局.
- 吳懋清(1997), 『毛詩復古錄』, 『四庫未收書輯刊』(四庫未收書輯刊編纂委員會 編), 伍輯·貳冊, 北京: 北京出版社.
- 袁梅(1999), 『詩經譯注』, 青島: 青島出版社.
- 程俊英, 蔣見元(1991), 『詩經注析』, 北京: 中華書局.
- 朱熹(2017),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 張次仲(2002), 『待軒詩記』, 『詩經要籍集成 15』(中國詩經學會 編), 北京: 學苑出版社.
- 夏傳才 主編(2014), 『詩經大辭典』,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 許慎(1988), 『說文解字注』 第2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班固, 『白虎通德論』, 四部叢刊初編本,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19. 1. 10. <https://ctext.org/bai-hu-tong/zh>

司馬遷, 『史記』, 武英殿二十四史本,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19. 1. 10.
<https://ctext.org/shiji/zh>

【는 저】

- 리평(2017), 이청규 역, 『중국고대사』, 서울: 사회평론.
- 마르셀 그라네(2005), 신하령, 김태완 역,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서울: 살림.
- 심재훈(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江林(2010), 『《詩經》與宗周禮樂文明』,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瞿同祖(2005), 『中國封建社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聞一多(1993), 「詩經通義乙·九罭(鬲六)」, 『聞一多全集』 4 詩經編下,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沈文倬(1999), 「觀禮本義述」, 『宗周禮樂文明考論』,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 王曉平(1994), 「《詩經》文化人類學闡釋的得與失」, 『天津師大學報』 1994年第6期, 天津師範大學.
- 齊思和(1998), 「周代錫命禮考」, 『二十世紀中國禮學研究論集』(陳其泰·郭偉川·周少川 共編), 北京: 學苑出版社.
- 陳夢家(2004),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 陳漢平(1986), 『西周冊命制度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 小南一郎(2006), 『古代中國天命と青銅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Creel, Herrlee Glessner (1936), “Bronze Inscriptions of the Western Chou Dynasty as Historical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56 (3), American Oriental Society.
- Vogt, Paul Nicholas (2012), “Between Kin and King: Social Aspects of Western Zhou Ritual”, Columbia University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Motifs Concerning Presenting Clothes in *Shijing* and
the Reception Ceremony for Royal Guests
in the Zhou Dynasty

Lee, Ukjin*

Poems about presenting clothes in *Shijing* have motifs related to the arrival of the receiver of the clothes, the listing of clothes, and the hospitality and affection for the receiver. Each of these motifs corresponds to procedures for treating guests in the Zhou palace. In Mao 222 and 261 in Court Hymns, the procedures and ceremonial dresses presented by the king are explicitly exhibited; a few examples can also be found in the poems in *Airs of the States*, which are known to be songs of love or praising figures in history. All of the clothes presented are believed to be of ceremonial dress. *Ceremonies and Rites* and the inscriptions of bronze vessels only contain information on the ceremonial procedures and the official statements of kings and vassals. In contrast to this, poems about presenting clothes in *Shijing* demonstrate not only the king's address of instruction or the duties of feudal lords, but also metaphors of natural scenes and brotherly love for the guest. This contrast derive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strict protocol and harmonious music.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